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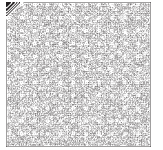
# 시온 주보

제2326호 2021년 2월 7일(나해)

연중 제5주일

발행 [가톨릭]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 욥기 7,1-4.6-7

**화답송** | 시편 147(146-147),1ㄴ ㄷ-2.3-4.5-6(◎ 3번 참조)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  
엘을 모으시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  
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  
시네. ◎

**제2독서** | 1코린 9,16-19.22-23

**복음환호송** | 마태 8,17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 음** | 마르 1,29-39

**영성체송** |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 고통의 바다에 있는 우리 인생, 복음에 동참하도록 불리움 받다

오늘 1독서에서 욥은 말합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 나의 나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굳이 욥의 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네 인생은 크고 작은 고통과 시련에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는 체험으로 압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서 당신의 공생활을 막 시작하시던 무렵, 그 시대 사람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자로 삼으신 시몬의 경우 그 장모는 열병에 누워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치유를 보거나 들은 뒤, 온 고을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상황을 통해 보자면, 그 시대 그 삶도 우리네처럼 ‘고통의 바다’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죄에 따른 벌이라는 기계적 도식으로 우리 삶과 세상을 재단하고 이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든 고통과 시련에 대면하고 있는 우리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음을 오늘 복음은 보여줍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 일행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누워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십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고 복음서는 전해 줍니다. 누워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돕고 봉사하는 이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인생은

고역이라는 욥의 말처럼, 병고에 시달리던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하라고 복음은 초대합니다.

그 변화를 더 극적으로 증명하는 예가 바로 바오로 사도입니다. 알다시피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 오늘 2독서에서 보듯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은 그 원인과 뿌리가 어디에서 연유되었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더욱 가까이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하도록 우리를 불려주시는 초대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변화되어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초대를 만나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부활을 체험케 하는 하느님의 초대를 만나봅시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마르 1,38)**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따르려 모든 것 버리고 겸손하게 성인호칭기도를 바치는 새 사제들의 거룩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공동체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받을 때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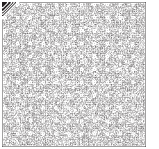
김영희 사라 | 가톨릭사진가회







유별남 레오폴도 | 사진가



## | 면‘面’을 세우다

저는 직업이 사진가라 작품이 저에게는 제 ‘면’, 곧 ‘얼굴’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 낸 작품을 갤러리에 걸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 안절부절못합니다. 정작 저는 그 자리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매일 갤러리에 나가서 관객들에게 작품에 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듣는 이에겐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되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을 내놓지 못한 불안감이라고나 할까요? 때로 강단에 서 있을 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나를 보는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에 저를 꾸미려고 하고,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일까요?

체면을 차리다. 면이 안 선다.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면’을 내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웃고 찡그리고 돌아서면서 순간을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때로는 다른 이를 빗대고 시기하기도 하지요.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얼굴에 그 감정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질책하기도 하지요. 상대방은 사심 없이 돌아서는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면을 세우느라 안달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만 세울 수 있는 그것에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다급하거나 중요한 일에는 체면 따위는 내버리라고 하지만 매 순간 자신의 면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 ‘면’이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때론 너무

힘들어 정말 울고 싶어 그분에게 의지할 때면 그 간절함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꾸밈도 필요 없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내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의 ‘면’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느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누구에게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실로 대하라는 방법을 말이죠. 그 속에서 겉모습을 내려놓고 자신의 면을 세우기 위해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아무런 면‘面’을 내세우지 않는 하느님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서울대교구의 가톨릭 사진가협회 회원들이 서울주보의 또 다른 ‘면’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주보의 표지를 장식하는 회원들의 사진입니다. 주보의 겉보다는 속의 진중함이 더 크고 표지로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매주 한 장의 사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힐링’하시는 즐거움을 드리는 기쁨으로 가톨릭 사진가협회 회원들의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나를 이끄는  
성령구절

과냉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마태 11, 28)

박혜영 아녜스 | 구의동성당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사업

“  
한솔이의 꿈을  
지켜주세요  
”

“엄마, 나 머리 아파”

2013년 초등학교 6학년 여름날 오후, 세상 걱정 없이 뛰 어놀던 한솔이의 갑작스런 말에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감 기인가 싶어 동네병원을 찾았습니다. 동네병원에서는 피검 사를 해보더니 큰 병원에서 상세하게 검사할 것을 권유하 였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희귀난치병인 '상세불명 의 무형성 빈혈'로 진단받았습니다.

한솔이는 현재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솔이 엄마는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재혼 하면서 버림받아 남의집살이를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아이 들 아빠와는 음주, 도박 등의 문제가 심각해 결국 한솔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이혼했고, 투병 소식을 들은 후로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눈치 를 보며 힘겹게 일을 했지만 남편이 남긴 1억 원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부모의 보살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고단한 삶을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 루여도 아이들이 웃는 모습에서 삶의 위로와 희망을 얻으 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솔이의 갑작스런 발병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솔이는 철분과 혈소판 생성이 되지 않아 매월 1~2회 입원하여 정기적인 수혈을 받고 있으며, 상태가 나빠지면 수시로 수혈받으러 내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월 병

원비뿐만 아니라 경북 김천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는 교통 비와 입원생활비를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한솔이 엄마는 개인파산 상태로, 가정의 수입은 3인 가구 정부지원금 월 115만 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엄 마가 식당 설거지, 이삿짐센터 일용직으로 일해서 치료비 와 생계비에 보태고 있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어 려워졌습니다.

엄마는 사실 본인도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 면서도 경제적 형편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 원에서는 한솔이가 완치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앞으로 대 략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전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픈 자신 때문에 제 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동생과 아픈 엄마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한솔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에게 는 더욱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솔이는 언젠가는 건강 을 회복할 것을 믿으며,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격 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솔이의 꿈은 간호사입니다. 꿈도 많고 재주도 많은 한 솔이가 소원하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자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세요.

\*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김한솔 양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양의 치료비와 생계비로 지원됩니다. 총 지원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어진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1년 2월6일~3월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김한솔 님'(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독 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 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 2월 11일(목)은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세계 병자의 날’은 병자들과 병자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를 기억하고 고통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며, 병자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키우도록 일깨우는 날입니다. 병자들의 빠른 쾌유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월 12일(금)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날은 설날 미사 경문으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4년 2월12일 김선영 요셉 신부(76세)
- 2016년 2월11일 강대호 스테파노 신부(55세)

### 교구정일림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설 연휴 휴관일정: 2월10일(수)~16일(화)

### 2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예수님 시대 배경 /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2월22일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임선자 오틸리아, 최혁철 베드로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56차 미사**(‘내 마음의 복된 봉당 갖기’ 미사)  
때, 곳: 2월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의주 본당, 강계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본당 환경분과위원 온라인 생태 교육

대상: 본당 환경분과위원 및 관련 사목 위원  
내용: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와 실천지침에 따른 본당 환경사목 활동  
때: 2월16일(화) 19시~21시  
신청: <https://ecocatholic.org> 내 교육 신청  
문의: 02)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 2021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가톨릭인성교육 I-Brand반 모집

청소년국 산하 학교사목부에서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I-Brand반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I-Brand반 운영을 원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제: 인성교육(나를 깨닫고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 이루기)  
수업 영역: 지구시민, 생명문화, 공예, 문화, 심성계발, 나눔실천 / 2월17일(수)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 02)553-7320~2 학교사목부(일·월 휴무)  
홈페이지: [www.kyos.or.kr](http://www.kyos.or.kr)

### 전국 교구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쓰기 이벤트

때: 2월21일~4월1일(40일간)  
시상: 전체 1~3등, 교구별 1등, 특별상  
모바일앱 ‘가톨릭’에서 참여 / 문의: 02)777-201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lak.or.kr](http://www.clak.or.kr)) 참조

### 2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및 모임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2월20일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4층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명동) 유가족 대성별부도, 형제, 배우자, 자녀 모임 및 면담 문의: 02)727-2495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한라산눈꽃 피정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성지순례 피정	3월15일~18일, 3월21일~24일
자연순례 피정	3월5일~7일, 3월27일~29일

###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 초급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02)575-7661 가톨릭성음악 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음악치유 피정반	3월4일~17일 매주(수)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3월2일~16일 매주(화) 13시~17시	회비: 15만원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3월27일(토)~28일(일)
3박4일	3월18일(목)~21일(일), 4월29일(목)~5월2일(일)
8박9일	3월5일(금)~13일(토), 4월8일(목)~16일(금)
40일	4월6일(화)~5월15일(토)

###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 성공로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24세~40세 신자 / 010-3817-0567(columban.or.kr)  
때, 곳: 2월14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또는 비대면

#### 교육

### 목주·반지·목걸이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http://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3월2일(화)~6월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http://caff.kr)) 참조

### 30~40대 청장년을 위한 신약 통독

때: 4월~12월 (일) 30대 (토) 40대 16시~18시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3개월 10만원  
지도: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 010-4598-6912

### 가톨릭ON(생활성서사 온라인 클래스) / 문의: 010-3092-1108

클래스 개강: 2월15일 / [www.catholicon.co.kr](http://www.catholicon.co.kr)  
클래스 오픈 기념 열리버드 할인혜택 기간: 2월14일까지

바ible가이드(성경입문가이드)	김효준 신부
성경 본문 zoom(Zoom in) 구세사 편 1	김혜윤 수녀
늘푸른성경여정 구역 1(입문+창세기)	김영선 수녀
늘푸른성경여정 신약(예수그리스도입문)	박기석 신부
지혜여정(이사야서·다니엘서·요나서)	박형순 신부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온라인 사순 특강

내용: 실시간 영상 강의를 진행 / 회비: 3만원  
때: 2월24일~3월24일 매주(수) 10시30분~11시30분(5회)  
접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홈페이지([www.fec.or.kr](http://www.fec.or.kr)) 참조

2월24일	찬미와 권고의 삶	문의: 02)6364-2204
3월3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3월10일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	
3월17일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3월24일	팬데믹 시대의 형제애적 등불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이론연구소 19기 신입생 모집 / 문의: 02)313-9973**

분야: 이론제작 및 연구(3년 과정) / 대상: 만 65세 미만

실기시험: 2월20일(토)·2월22일(월) 10시30분(택1),

가톨릭출판사(중구 중림로 27) 신관 6층

**사순 온라인 '40일 회복 수련'**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티회)

때: 2월16일부터 매주(화) 총 7회

낮강의 14시·밤강의 22시 중 선택

문의(접수): 010-8911-5957 천주교사도직연합회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2월16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배움터	매주(수) 15시30분 / 무료 강좌
국악성가 반주장구	매주(수) 14시 초급, 매주(목) 14시 중급·15시30분 고급
솔리스트 양성과정	매주(목) 19시
시니어아카데미 지도자과정	매주(화) 11시~16시
국악성가연구소 월례기도	매월 둘째주(토) 14시

**예수회센터 영성 강좌(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몸 신학' 교리 해설	현장 강의-매주(월) 10시~12시 동영상 녹화 강의-동영상 링크 발송	김해숙 선교사
심리적 치유와 성숙을 통한 영적 여정(신설)	매주(화) 14시 ~16시	신선미 선생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매주(화) 14시~16시	서명원 신부
영성과 철학상담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영신수련 정기 강좌	매주(수) 10시~12시	이규영 신부

**루하 젊은이 성령 세미나(청년성령쇄신봉사회)**

내용: '성령 안의 새 생활'을 위한 강의와 안수

때: 3월5일~4월23일 매주(금) 20시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선교아카데미 제10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

도자, 평신도 / 회비: 80만원(식대 포함)

때, 곳: 3월4일~9월30일 매주(목), 한국외방선교

회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월~12월(2월 예비학교 예정) / 대상: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해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회비: 7만원

대상: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3월3일부터 매주(수) 10시30분·19시40분(총6회)

곳: 한국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5번)

2월25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2021년 상장례 연도 전문강사 양성교육**

때: 매주(목) 19시~20시40분 / 대상: 본당 또는 관

련단체에서 연도 전문강사로 활동하실 분

기간: 1년 과정, 1학기(3월~6월)·2학기(9월~12월)

내용: 상장예식, 상장례성음악, 연도의 이론과 가창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최양업홀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회비: 각 학기당 26만원 / 문의: 010-3211-8941

가톨릭 상장례음악연구소(www.yeondo.org)

**미사**

**들꽃마을 서울 영성강의 및 미사 취소 안내**

때: 2월9일(화) / 문의: 054)955-4133, 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집**

**2021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

을 살고자 하시는 견진 받은 16세 이상의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02)793-

2070 쾨벤푸알, 010-7261-8233 카푸친, 010-

4171-0898 청년회(만35세 미만)

**인내**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운영 / '치매안심병동' 운영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041)950-1008

**깨어있는 대화 / 문의: 02)841-0524**

대상: 자기자신과 연결, 중요한 대상과의 깊은 연결

을 원하시는 분 / 강사: 엄영주 수녀(상담심리사 1급)

때, 곳: 2월19일(금) 10시~12시30분(8주간),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주최) 상담실(전철 7호선 신평역 4번 출구)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일) 슬기로운 부모생활
전문 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적응) 종합심리검사 / 비대면 화상상담 가능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AMR 영성심리치유	내면아이 치유, 분노조절 외 청소년 및 성인 대상(상시)
수지메니에그램	자기 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상시)
의식성장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가치야 놀자'	개인, 가족(청소년), 소규모 팀(상시)
영어·불어성경	3월 첫째주(금·토) 개강

**직원모집**

**돈암동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 문의: 02)925-0098**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소방·가스·보

일러 자격자 우대 /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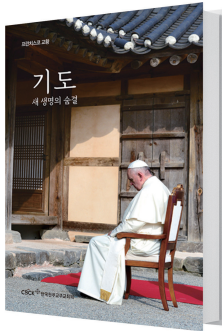
2월14일(일)까지 방문·우편(우 02849,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7길 120), 이메일(donam@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2140-7414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개별 면담)	온·오프라인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둘째주(토) 15시~(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2월20일(토)·21일(일) 14시~17시	온라인	010-5313-0241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둘째주(일)	수도원(성북동)	010-6608-3217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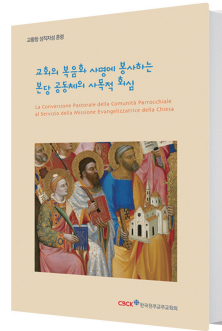


## 신간

## 기도, 새 생명의 숨결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183쪽  
6천원 | 문의: 02)460-7582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찰과 교리 교육 내용을 모아 엮은 책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도에 대한 성찰은 기도할 시간을 좀처럼 내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기도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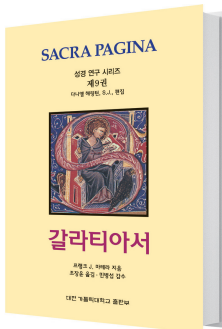


## 신간

##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교황청 성직자성 지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88쪽 | 6천원  
문의: 02)460-7582

본당 사목구는 그리스도와 또 형제자매들과 친교를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들의 공동체이다.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발표한 이 훈령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론을 상기하고, 크게 변화된 오늘날의 사회 문화 상황을 고려하여, 선교 정신을 통한 본당 사목구의 쇄신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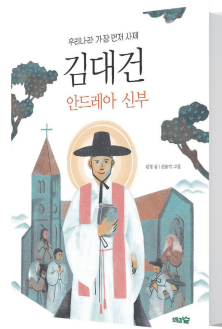


## 신간

갈라티아서  
(성경연구시리즈 제9권)

프랭크 J. 마테라 지음  
기쁜소식 | 400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바오로의 서간은 신학의 역사에서, 특히 은총, 믿음, 그리고 의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 주석서는 바오로의 믿음에 의한 의화의 교리가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교회 일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 신간

## 우리나라 가장 먼저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김영 지음  
도토리숲 | 176쪽 | 1만3천원  
문의: 010-9310-3647

김대건 신부님의 어린 시절부터 마카오에서 보낸 신학생과 유학생 시절, 우리나라 첫 사제가 되어 사목활동을 하고 순교하기까지 삶을 담은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책이다.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따뜻하지만 생생한 입말체 글과 파스텔 느낌의 그림으로 풀어냈다.



## 신간

## 주님께서 그대를 붙들여 주시리라

김상인 지음  
위즈앤비즈 | 216쪽 | 1만원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의 사순묵상집이 미래사목연구소장 김상인 신부에 의해 2021년 새롭게 집필되었다. 이 책은 사순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 안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고픈 묵상집이다.



## 신간

## 늘 푸른 성경 여정 신약

마이클 페크 지음  
생활성서사 | 144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신약 성경의 배경인 예수님 당시의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과 마르코 복음서의 배경과 주제 등을 다각적으로 다룬다. 또한 교회 공동체 문헌과 교의를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이해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한다.

## 《 금육재 관면 》

2월 12일(금)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교회 전례상 금요일은 금육재를 지켜야 하는 날이지만 귀향과 손님맞이 등이 이루어지는 명절이므로 교구장 명의로 금육재를 관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우분들께서는 이날 금육의 참뜻을 상기하시어 그 몫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누며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 기부 진시 ◆◆

## 명동성당 종횡계획 2단계 기금

(1월 25일 ~ 1월 31일 : 400,000원)

누계 : 1,891,904,758원

익 명 : 100,000원 | 조 경 수 : 100,000원  
김 동 호 : 100,000원 | 김 진 환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 명동대성당 미사시간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임시 조정 (12월 8일부터 적용)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사무실 폐문
토요일		
일요일	07:00~20:00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추가 연장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021년 2월 1일자 발령)

2021년 2월 1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추가 연장 조치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 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 개방을 계속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1시 ~ 오후 4시

· 김대건 성인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 11월 8일부터 개방된 지하성지는 매일 아래와 같이 개방을 계속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없음.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합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은 추후 공지 시까지 대면 수업은 중단하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은 교적과 상관 없이 미사당 120명으로 제한됩니다.

타 교적 신자분들은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명동대성당 전례봉사분과 단체별 단원 모집

· 공통 지원 자격 : 세례 받은 지 만 3년이 넘은, 서울대교구 내에 거주하는 자

· 모집 단체

## ① 새벽미사 봉사단

: 매일 아침 7시 미사 해설·독서 봉사

## ② 성지미사 봉사단

: 평일(월~토) 오전 10시 미사 해설·독서 봉사  
(☞ 만 45세 이하)

## ③ 주일미사 독서단

: 주일에 거행되는 미사에서 독서 봉사  
(☞ 50세 이하)

## ④ 평일미사 독서단

: 평일(월~금) 저녁 6시, 7시 미사 독서 봉사  
(☞ 50세 이하의 남성 신자)

⑤ 해설단 : 평일 저녁미사 및 주일미사 해설 봉사  
(☞ 37세 이하, 평일 저녁 6시 봉사 가능한 남성 신자)

· 모집 기한 : 2월 7일(주일)까지

· 지원 방법 :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하고 교적증명서 1부 첨부하여 사무실에 제출

· 지원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 새 사제 첫 미사 》

지난 5일(금) 사제 서품을 받은 이영중(미카엘) 신부님의 첫 미사가 아래 일시에 거행됩니다.

• 2월 7일(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 대성전

### 《 설 합동 위령미사 》

2월 12일(금) 「설」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에 미사 예물 접수 하실 분들은 2월 10일(수)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 하시거나 설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 ◎ 설 연휴 기간 고해성사 및 본당 사무실 휴무

2월 11일(목)~14일(주일)까지 상설 고해성사는 없고, 본당 사무실은 2월 11일(목)~12일(금) 휴무입니다.

※ 본당 사무실은 13일(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근무

※ 평일미사는 기존과 같이 봉헌됩니다.

### ◎ 2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예비신자 환영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2월 14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내방 접수로 교리반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강 사
수요반	오후 7:30	이길재(베드로) 신부
주일반	오전 10:00	오 세실리아 수녀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교리반 접수 장소 : 교육관 303호

※접수 시 준비사항 : 등록비 1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취소

사순 시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성전에서 다 함께 봉헌하던 「십자가의 길」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성전 개방시간(월-금 11:00~16:00)을 이용하시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 ◎ 1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1월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710,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 재의 수요일 》

2월 17일(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 속죄와 보속의 사순 시기가 시작되며, 당일 모든 미사 중에는 이마에 재를 얹는 예식이 거행되오니 작년 코로나19로 제출하지 못한 **성지(聖枝)**를 갖고 계신 분들은 2월 14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미사 참례 지침 안내

(※2월 7일 현재)

단 계	미사 참례 지침
1단계	1~2미터 간격을 두고 띄어 앉기
1.5단계	좌석 수의 3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400명)
2단계	좌석 수의 2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250명)
2.5단계	좌석 수의 1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120명)
3단계	비대면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주례자+스태프)만 입장

※상기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본당 미사 참례 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보 발행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시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2.5단계 이상 상황에서는 홈페이지 하단 유튜브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당 카카오톡채널 [명동대성당 소식] 개설

코로나19로 성당에 오시지 못해 본당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교우분들을 위해 카카오톡채널[채널명: 명동대성당 소식]을 개설하였습니다. 주보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당 소식을 카카오톡채널 추가로 휴대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5-1/31).....39,605,000  
• 연중 제 4 주일 헌금.....10,388,000  
•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4,620,000  
• 감사헌금 (1/25-1/31).....2,348,000

권 베로니카 / 김 다비드 / 김 발렌티노  
김 베네딕다 / 김 베드로 / 박 베드로  
박 소화데레사 / 백 안젤로 / 윤 마리스텔라  
이 가브리엘라 / 이 글라시아 / 이 안나  
임 사무엘 / 전 베로니카 / 조 첼리나  
최 라자로 / 최 로사리아 / 현 베로니카